여성임원 보유 기업과 조세회피

The Role of Female Executives in Corporate Tax Avoidance

김영화(Kim, Young - Hw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임원의 보유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임원의 수에 따라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임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위험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만약 여성임원이 위험회피형이라면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이고, 위험선호형이라면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여성임원의 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대용치로 Desai와 Dharmapala(2006)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임원 보유의 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qbal et al.(2006)이 주장한 것처럼 여성임원들이 위험에 적극적이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조세회피에 대해서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격적 조세전략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임원이 포함된 이사회의 성향 외에 여성임원의 수가 적은 국내상장기업의 경우 여성임원을 보유하는 기업문화의 적극성 또는 개방성이 조세회피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공격적인 성향 혹은 문화가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최기호, 2018). 본 실증연구 결과 여성임원의 수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자인 임원의 성향에 따라 조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의 성별다양화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최초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글검색어: 조세회피, 여성임원

•접수일자 : 2019.5.31 • 1차수정일 : 2019.6.11 • 최종수정일 : 2019.6.24 • 게재확정일 : 2019.6.30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부교수, e-mail : moviekim@kmu.ac.kr

I. 서 론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2010년까지 30%에 이르도록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여성할당제(gender quota system)라 하며 대한민국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아직도 여성의 사회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기업의 여성임원비율은 OECD 국가 7년째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최근 연구는 여성임원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강화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자본조달비용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수인과 홍지연, 2015 ; 김용수와 오웅락, 2017)²⁾. Fracis et al.(2015)는 CFO가 여성으로 변경된 후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³⁾. 여성CFO는 남성CFO에 비해 소송위험, 도산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정부가 의도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 행위를 합법적 행위와 비합법적 행위로 구분하면 합법적 행위를 절세라고 하고 비합법적 행위를 탈세라고 한다. 합법적인 절세를 조세회피(tax avoidance)라고 하며, 비합법적인 조세회피를 탈세(tax evasion)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개념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행위 모두를 지칭하여 논의한다. 최근 세무관련 논문에서 조세회피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문적인 관심과 더불어 과세당국은 세수를 확보한 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조세회피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다(최기호, 2018). 조세회피 행위는 비합법적인 것이든 합법적인 것이든 조세수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에 대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조세회피는 양면성을 갖는 투자안이다. 세후 현

1) 2019. 4.25 이투데이 뉴스에서 발췌

2) 기업경영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부정적인 연구(임형록과 정석균, 2010)도 있다.

3) 여성 임원들이 남성 임원들에 비하여 보다 위험에 적극적(risk-taking)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Iqbal & O & Baek, 2006).

금흐름의 기뻐움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조세회피라고 하더라도 일반대중들에게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켜 명성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을 불러올 수 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익비용분석을 따르기 보다는 조세회피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전략적 선택요인 중 하나가 기업의 임원들이며 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지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원구성원의 성별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특성 등과 더불어 여성임원보유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조세정책결정에 여성임원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에 관한 과세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변수로 Desai & Dharmapala(2006)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김진희와 정재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모형에 기초한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장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의 설계, 변수의 정의, 표본의 선정에 대해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여성임원

Adams & Ferreira(2009)와 Adams et al.(2010)는 여성임원이 경영자의 업무 보고에 대한 감독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경영자의 보고나 이익의 질과 관련된 감사 등과 관련하여 성별이 다양한 이사회에서 더 효율적인 감독기능이 이루어지며 남성에게 비해 감독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Iqbal & O & Baek(2006)에 의하면 남녀 임원들의 위험에 대한 실제 성향 자체는 여성 임원들이 남성 임원들에 비하여 보다 위험에 적극적(risk-taking)인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 임원진 비율이 높은 기업의 장점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여성 임원진 수의 증가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dams & Ferreira, 2009). 우리나라의 여성임원에 대한 공시는 2013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임원관련 공시서식이 개정됨으로서 시작되었다. 해외연구는 이사회구성원의 성별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하나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김수인과 홍지연(2015)은 강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서 여성임원의 이사회 참여가 회계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김용수와 오웅락(2017)은 여성임원비율이 높을수록 초과이익과 순자산의 주가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전경민 등(2017)은 이사회 다양성이 경영자의 실제 이익조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사회 다양성과 실제이익조정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이사회 독립성이 증가되고 감시·감독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활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여성임원과 실제이익조정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사회 내 여성임원이 포함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여성임원 보유기업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조세회피

최근 세무관련 논문에서 조세회피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7까지 주요 해외회계학술지⁴⁾에 게재된 세무관련 논문 76편 중 43편이 조세회피관련 논문이다(최기호, 2018). 학문적인 관심과 더불어 과세당국은 세수를 확보한 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조세회피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다(최기호, 2018). 일반적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개념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행위 모두를 지칭하여 논의한다.

조세회피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우선, 비조세비용이 조세회피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비조세비용은 대리인 비용, 명성비용, 정치적비용 등을

4) The Accounting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를 말한다.

말한다. 비조세비용에서 나아가 조세회피결정요인으로 경영자의 성향이나 전략적 선택으로 조세회피가 결정되는 것을 새롭게 실증한 연구도 있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이론적 연구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적 모형이나 사회심리학적 모형을 사용하여 제재적인 측면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실증적으로 분석된 것은 설문조사방법이나 실험실 연구법 그리고 실제자료 분석연구법을 이용하여 이론적 연구에서 간과했던 납세자의 태도나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Desai & Dharmapala(2006)는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보상유인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세무보고이익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측정한 후 이 차이 중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로 인하여 차이가 생긴 부분을 분리하여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보상유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보상수준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조세회피행위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자금유용행위(managerial diversion)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높은 환경에서 보상이 많을수록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오정택과 김영화, 2010).

Scholes et al.(2014)는 명성 및 정치적 비용이 기업의 조세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비조세비용이며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조세회피가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진희와 정재욱(2006)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변화와 같은 재무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변화율은 조세회피행위와 양(+)의 관계, 부채비율변화율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들은 총자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한다고 해석하였다. 고윤성 등(2007)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추정액과 관련성 있는 기업특성요인을 파악하고 조세회피행위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조세혜택수준이 감소할수록 조

세회피 가능성이 증가하며 과도한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조세회피동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익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추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세무전략을 수행하는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소유자지배 기업일수록 채무보고비용보다는 세무보고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추정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오정택과 김영화, 2010).

Amstrong et al.(2015)은 재무적 전문가가 이사회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독립적인 이사가 이사회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분석결과 조세회피가 낮은 수준에서는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이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조세회피가 높은 수준에서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좋은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조세회피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기보다는 극단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을 줄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세회피는 양면성을 갖는 투자안이다. 기업에게 세후 현금흐름의 기댓값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높아지기도 한다. 합법적인 조세회피라고 하더라도 일반대중들에게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켜 명성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익비용분석을 따르기 보다는 조세회피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전략적 선택요인 중 하나가 기업의 임원들이며 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지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원구성원의 성별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임원 보유기업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III. 연구 설계

3.1 가설의 설정

조세회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의사결정권자인 이사회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Fracis et al.(2015)는 CFO가 여성으로 변경된 후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CFO는 남성CFO에 비해 소송위험, 도산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dams & Ferreira

(2009)와 Adams et al.(2000)는 여성임원이 경영자의 업무 보고에 대한 감독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경영자의 보고나 이익의 질과 관련된 감사 등에서 남성임원에 비해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경영자는 조세회피 행위뿐만 아니라 조정된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의 자원을 유용할 가능성, 즉 사적편익 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사적편익 추구행위는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주체나 제도가 미비할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임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면 여성임원들이 많을수록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Iqbal & O & Baek (2006)는 여성 임원들이 남성 임원들에 비하여 보다 위험에 적극적(risk-taking)이라고 하였다. 여성임원들이 위험에 적극적이라면 여성임원이 많을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공격적인 성향 혹은 문화가 조세회피와 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최기호,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여성임원의 보유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여성임원보유는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성임원 보유기업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TS = \beta_0 + \beta_1 WOMAN + \beta_2 SIZE + \beta_3 ROA + \beta_4 ForeignOWN + \beta_5 OCF + \beta_6 LEV + \sum YR + \sum IND + \epsilon$$

TS	: 조세회피측정치
WOMAN	: 여성임원 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대수값)
ROA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ForeignOWN	: 외국인지분율
OCF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LEV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YR	: 연도별 더미변수
IND	: 산업별 더미변수

여성임원보유 외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의 정도가 다르다는 선행 연구(Desai & Dharmapala, 2005 ; 김진희와 정재욱, 2006 ; 고윤성 등, 2007)에 의해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을 취한 것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세 전략에 따른 비용이 자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들이 총자산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가시성으로 인하여 더 많은 규제조치와 부의 이전을 요구받는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여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규모(SIZE)를 변수에 추가하였다. 이익의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 정도가 다르므로 개별기업의 이익을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순이익률(ROA)을 포함하였다. 한편, 외국인의 소유지분율(ForeignOWN)이 증가할수록 대주주를 견제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배당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지표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 보다는 회계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무이익산출구조상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고종권, 2003).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회계정보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경영자는 조세회피 행위뿐만 아니라 조정된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의 자원을 유용할 가능성, 즉 사적편익 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사적편익 추구행위는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주체나 제도가 미비할수록 증가할 것이다. 즉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시주체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 및 유동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작은 기업일수록 직접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세금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금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현금흐름에 따라 조세회피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영업현금흐름(OCF)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기업들은 부채를 활용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부채를 이용할 경우 재무보고이익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무보고이익만을 줄일 수 있는 조세회피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LEV)를 추가하였다. 연도별 더미(YD)와 산업별 더미(IND) 변수는 회계 또는 세법규정의 연도별,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3.1 조세회피행위(TS) : 종속변수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로 납부성실도, 회피율, 회피된 소득금액 등을 사용하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어진 회피세액은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금액은 배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행위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sai & Dharmapala (2006)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김진희와 정재욱(2006)의 연구 및 오정택과 김영화(2010)에서 사용되어진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조세회피행위의 대용변수로 설정하여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Desai & Dharmapala(2006)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의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가 조세회피행위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익조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조정행위로 인한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 잔차를 추정하고, 추정된 잔차부분을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발생주의에 기반을 두어 산출되는 회계이익과 현금주의에 기반을 두어 산출되는 과세소득의 차이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이익조정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조세회피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세무보고이익은 재무제표에서 구할 수 있는 법인세부담액⁵⁾으로 계

5)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당기말 이연법인세자산-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당기말 이연법인세부채-전기말 이연법인세부채)

산하였다.⁶⁾

$$\widehat{Y}^T = \frac{CTE}{\tau} \quad \text{식(1)}$$

$\widehat{Y}^T$: 세무보고이익

CTE : 법인세부담액

τ : 법인세율

식(1)에 따라 계산된 세무보고이익이 (+)인 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였다. 세무보고이익이 (-)로 나온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이익으로 사용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추정된 세무보고이익을 차감하였다.

$$BTGAP = Y^S - \widehat{Y}^T \quad \text{식(2)}$$

$BTGAP$: 재무보고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Y^S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widehat{Y}^T$: 세무보고이익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는 조세회피행위 뿐 아니라 회계이익을 높이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액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 대응치로는 주로 총발생액이나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발생액⁷⁾을 이익조정행위 대응치로 보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에서 총발생액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세회피행위로 간주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세무보고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과세표준	세율	추정과세소득($\widehat{Y}^T$)
2억원 이하	10%	$\widehat{Y}^T = \text{법인세부담액} / 11\%$
2억 초과 200억 이하분	20%	$\widehat{Y}^T = (\text{법인세부담액} - 2\text{천만원}) / 22\% + 2\text{억}$
200억 초과분	22%	$\widehat{Y}^T = (\text{법인세부담액} - 39\text{억}8\text{천만원}) / 24.2\% + 200\text{억}$

7) 총발생액(Total accruals : TA)은 당기순이익(net income : NI)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ash flows from operations : CFO)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유동발생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BT_{i,t} = \beta_1 TA_{i,t} + \varepsilon_{i,t} \quad \text{식(3)}$$

$BT_{i,t}$: BTGAP/총자산

$TA_{i,t}$: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총자산

$\varepsilon_{i,t}$: 기업 i의 t년도의 잔차

본 연구는 식(3)의 모형을 연도별-산업별로 회귀분석을 한 후 잔차를 추출하였다.

$$TS = \epsilon \quad \text{식(4)}$$

TS : 조세회피행위

ϵ : 잔차

추정된 잔차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에서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으로써 이를 조세회피추정액으로 간주하였다(Desai & Dharmapala, 2006 ; 고윤성 등, 2007 ; 오정택과 김영화, 2010).

3.3.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1) 여성임원보유(WOMAN)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여성임원의 수를 말한다.

(2) 기업규모(SIZE)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을 이용한다.

(3) 총자산 순이익률(ROA)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4) 외국인지분율(ForeignOWN)

외국인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사용하였다.

(5) 영업현금흐름(OCF)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영업현금흐름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6) 부채비율(LEV)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3.3.3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 (1) 금융업과 보험업 이외의 산업에 속한 기업
- (2)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 (3) 과세소득이 (+)인 기업
- (4) 자본이 (+)인 기업
- (5)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의 DB에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6) 여성임원과 총임원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구성 항목 및 영업상의 특징이 일반기업과 상이한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업과 보험업에 속한 기업들은 제외시켰으며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왜곡과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결산 기업만을 사용하였다.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의 동기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이 음(-)인 기업은 제외하였고 자본잠식 기업도 제외하였다. 이상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종표본은 기업-연도 총 2,631개 기업이고, 표본 선정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선정절차

구 분	합 계
분석기간 중 자본잠식이 없는 12월 결산 비금융기업	3,375
과세소득이 (-) 기업	(403)
여성임원에 대한 자료미비	(341)
최종표본	2,631

IV. 분석결과

4.1 기술 통계량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임원보유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S	0.017	0.008	0.065	-0.308	1.295
WOMAN	0.616	0.000	2.300	0.000	47.000
SIZE	26,858	26,626	1,480	23,023	32,920
ROA	0.026	0.028	0.154	-1.514	5.013
ForeignOWN	0.102	0.047	0.131	0.000	0.897
OCF	0.048	0.046	0.076	-0.698	0.919
LEV	0.400	0.398	0.131	0.000	1.723

TS : 조세회피측정치
 WOMAN : 여성임원의 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대수값)
 ROA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ForeignOWN : 외국인지분율
 OCF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주요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임원의 수(WOMAN) 평균은 0.616이다.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에서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30%로 권장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교육계 등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회피행위의 대용변수로 사용된 조세회피측정치(TS)의 평균(중위수)은 0.017(0.008), 표준편차가 0.065,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0.308, 1.295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SIZE)는 평균(중위수)이 26.858(26.626), 표준편차가 1.44로 평균값이 중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 자산의 규모가 큰 기업이 자산의 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 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자산 순이익률(ROA)은 평균이 0.026 중위수가 0.028이며, 외국인 지분율(ForeignOWN)은 각각 0.102와 0.027이다. 부채비율(LEV)은 평균이 0.400이며 중위수는 0.398로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선행연구의 통계치와 큰 차이가 없다.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TS	WOMAN	SIZE	ROA	ForeignOWN	OCF	LEV
TS	1						
WOMAN	-0.014	1					
SIZE	-0.146***	0.306***	1				
ROA	-0.176***	0.036*	0.089***	1			
ForeignOWN	-0.073***	0.228***	0.530***	0.129***	1		
OCF	-0.431***	0.060***	0.191**	0.323***	0.231***	1	
LEV	-0.006	-0.050***	0.147***	-0.205***	-0.152***	-0.109***	1

* : $P < 0.10$ ** : $P < 0.05$ *** : $P < 0.01$

TS : 조세회피측정치

WOMAN : 여성임원의 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대수값)

ROA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ForeignOWN : 외국인지분율

OCF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주요 관심변수인 조세회피측정치와 여성임직원수의 상관계수는 (-)이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측정치와 기업규모, 영업현금흐름, 총자산순이익률, 외국인소유지분율은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성이 있는 상관계수로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살펴본 결과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독립변수들의 관계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IF가 기준치 1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4.3 회귀분석

여성임원의 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조세회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한다. 여성임원의 수는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 독립변수로 하며, 기타 기업규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총자산순이익률, 외국인지분율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 및 산업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와 산업별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수정된 R^2)은 20.72%로 나타났으며, F값은 29.63으로서 가설검증 모형이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여성임원의 수와 조세회피는 유의한 양(+)의 관계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임원보유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들이 남성 임원들에 비하여 보다 위험에 적극적(risk-taking)이라고 하는 Iqbal & O & Baek(200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여성임원들이 위험에 적극적이라면 여성임원이 많을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임원은 위험에 대한 회피성향이 높아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Francis et al.(2015)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내기업의 여성임원의 수는 평균인원이 0.67로서 절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임원이 포함된 이사회의 다양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여성임원을 보유하

8) 실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법인세부담액/세전이익)과 세무보고이익과 재무보고이익의 차이(BTGAP)를 조세회피대용치로 두어 회귀분석하였다. 세무보고이익과 재무보고이익의 차이(BTGAP)와 여성임원수는 10%범위내에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과 여성임원수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기업문화의 적극성 또는 개방성이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태도 또는 기업문화가 조세회피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공격적인 성향 혹은 문화가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최기호, 2018).

〈표 4〉 회귀분석 결과

$$TS = \beta_0 + \beta_1 WOMAN + \beta_2 SIZE + \beta_3 ROA + \beta_4 ForeignOWN + \beta_5 OCF + \beta_6 LEV + \sum YR + \sum IND + \epsilon$$

변 수	예상부호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0.165	5.50***	0.160	6.41***
WOMAN	?	0.001	1.74*	0.001	1.93*
SIZE	+(−)	−0.004	−4.02***	−0.004	−4.78***
ROA	+	−0.019	−2.39**	−0.021	−2.65***
ForeignOWN	−	0.033	3.05***	0.036	3.37***
OCF	−	−0.363	−22.12***	−0.356	−22.11***
LEV	−	−0.009	−1.53	−0.010	−1.82*
YD	+(−)	포함		포함하지 않음	
IND	+(−)	포함		포함하지 않음	
수정된 R^2		0.2072		0.1992	
F-값		29.63***		108.82***	
sample size		2,631		2,631	

* : $p < 0.10$ ** : $p < 0.05$ *** : $p < 0.01$

TS : 조세회피측정치

WOMAN : 여성임원의 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대수값)

ROA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ForeignOWN : 외국인지분율

OCF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값은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규모(SIZE)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 의무가 증가하고 이해관계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비용가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DEBT)은 조세회피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채의 감세효과로 인하여 세무보고이익이 줄어들어 조세회피행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였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2에서와 같이 연도별더미변수와 산업별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업현금흐름(OCF)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인 조세회피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가 현금흐름의 증가를 가져오는 내생성문제에서 기인되었다고 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외국인지분율(Foreign OWN)은 예상과 다른 결과이나 최원욱 등(2011)과 선우희연 등(2017) 및 박한순(2014)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여성임원의 수(WOMAN)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여성임원의 성향, 여성임원을 보유한 기업의 성향 또는 문화가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최근 세무관련 논문에서 조세회피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조세비용이 조세회피수준을 결정하는 지에 대한 실증연구 및 경영자의 성향이나 전략적 선택으로 조세회피가 결정되는 것을 새롭게 실증한 연구도 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에서 채택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래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상장기업중 여성임원이 1명이상 참여하는 기업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임원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7년째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임원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기업의 여성임원보유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심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만약 여성임원이 위험회피형이라면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이고, 위험선호형이라면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이다. 여성임원이 포함된 성별의 다양성이 기업의 조세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조세회피추정치를 측정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여성임원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임원보유의 수는 조세회피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qbal et al.(2006)이 주장한 것처럼 여성임원들이 위험에 적극적이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조세회피에 대해서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격적 조세전략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임원이 포함된 이사회의 성향 외에 여성임원비율이 낮은 국내상장기업의 경우 여성임원을 보유하는 기업문화의 적극성 또는 개방성이 조세회피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공격적인 성향 혹은 문화가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최기호, 2018).

본 실증연구 결과 여성임원의 수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자인 임원의 성향에 따라 조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의 성별다양화가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최초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과세당국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책수립 시 임원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와 조세회피행위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외에 다른 요인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이익조정행위도 총발생액을 통하여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윤성, 김지홍,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4), 9 - 40.
- 고종권. (2003).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8(2), 75 - 104.
- 김수인, 홍지연. (2015). 이사회 내 여성임원의 수가 기업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9, 69 - 100.
- 김용수, 오웅락. (2017). 여성임직원비용과 여성직원 재직기간이 회계정보의 주가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8(4), 173 - 193.
- 김진희,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3(4), 97 - 123.
- 박종국,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26(1), 105 - 135.
- 박한순. (2014). 과세소득의 측정 및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연구*, 19(5), 73 - 102.
- 선우희연, 이유진, 최종학. (2017). 감사인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피감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성향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6(5), 33 - 68.
- 오정택, 김영화. (2010).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조세연구포럼*, 10(2), 191 - 220.
- 임형록, 정석균. (2010). 기업특성과 여성임원비중의 연계성 - 경영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7(2), 25 - 50.
- 전경민, 신영직, 김현표. (2017). 이사회 다양성과 실제이익조정. *회계저널*, 26(3), 33 - 77.
- 최기호. (2018).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연구동향. *세무학연구*, 35(4), 207 - 275.
- 최원욱, 고윤성, 조정은. (2011).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8(3), 9 - 35.

〈외국문헌〉

- Adams, R. B., and D. Ferreira. (2009). Women in the boardroom and their impact 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4(2), 291 - 309.
- Adams, R., B. Hermalin, and M. Weisbach. (2010). The role of boards of directors in corporate governance : A conceptual framework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8(1), 58 – 107.

Armstrong, C. S., A. Jagolinzer and D. F. Larcker. (2015). Corporate Governanc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 1 – 17.

Desai, M. A., and Dharmapala, D. (2005).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Working paper.

Desai, M. A., and Dharmapala, D.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 – 179.

Francis, B., Hansan, I., Park, J. c., & Wu, Q. (2015).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investment in internal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9(5), 503 – 513.

Iqbal, Z., O, S., and H. Y. Baek. (2006). Are Female Executives More Risk – Averse than Male Executives? *Atlantic Economic Journal*, 34(1), 63 – 74.

Scholes, M., Wolfson, M. Erickson, M. Hanlon, E. Maydew and T. Shevlin. (2014).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 Hall.

“본 논문은 학회윤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논문에 대한 판권을 학회에 위임합니다.”

<Abstract>

The Role of Female Executives in Corporate Tax Avoidance

Kim, Young - Hw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 of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on tax avoidance. Specifically, it verifies how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affects tax avoidance.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wo outcomes ; female executives are risk-averse and conservative in decision-making ; female executives are risk-taking. If a female executive is risk-averse, then there will be a decrease in tax avoidance, and if a female executive is risk-taking,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tax avoidance, so this study is intended to validate this. From 2013 to 2017, the effect of the number of female in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to settle accounts in December executives on tax avoidance was analyzed.

The method propos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was used as an proxy variable of tax avoidance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has increased tax avoidance. As Iqbal & O & Baek (2006) argued, if female executives are willing to take risks, they are likely to be active in tax avoidance that requires them to take risks.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an aggressive tax strategy is relatively preferred. In addition to the tendency of th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female executives, the active or open nature of the corporate culture of holding female executive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n additional effect on tax avoidance. This is because corporate aggressive tendencies or cultur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Choi Ki-ho, 2018).

This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tax strategy may vary depending on the decision maker's inclination, given that the number of female executives affects tax avoidance. It is significant in that this research analyzed for the first time that gender diversification of executives has an impact on the tax avoidance of the entity.

Key words : Tax avoidance, Female executives

---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e-mail : moviekim@kmu.ac.kr